

#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Users

김 흥 렬(Hong-Ryul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연구의 결과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기초통계분석     |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 2. 도서관불안분석    |
| II. 선행연구        | IV. 결론 및 제언   |

### 초 록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정보, 교육,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정보문화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서관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LAS(Library Anxiety Scale)를 사용하여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은 높게 나타났으며, 계층별, 연령별, 학력별, 도서관방문횟수별, 도서관교육프로그램참여여부에 따라 도서관불안의 정도 차이가 매우 높았다.

키워드: 도서관불안, 정보이용교육, LAS, 도서관불안척도, 공공도서관

### 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and analyze the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users utilize LA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contained the differences of library anxiety in sex, educational background, age categories, the frequency of library visit, the completion of information literacy program and library use instruction. Library anxiety is very differed according to the various factors, especially, the library anxiety of knowledge of library, barriers with staff was high, the average LAS score is 2.61, 2.60. Regard to results of this study, conclusion are suggested the recommendations for a decrease in library anxiety of public library users.

Keywords: Library Anxiety, LAS, Public Library, Library Anxiety Scale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hykim505@jj.ac.kr)  
• 접수일: 2008년 11월 19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도서관불안(library anxiety)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교육 및 문화적 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불안감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심리적 불안현상을 관련 연구들에서는 도서관불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도서관불안은 도서관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느끼는 불안 혹은 막연한 두려움을 의미한다.<sup>1)</sup> Jiao 등<sup>2)</sup>은 “도서관에서 경험하게 되는 안락하지 않은 느낌이나 정서적인 느낌”이라고 도서관불안을 정의하고 있다.

불안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이루어진 도서관불안은 Mellon의 연구<sup>3)</sup>에서 처음으로 출현한 개념이다. 그는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도중에 도서관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두려움, 공포, 혼란, 무력감 등의 심리적 불안감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도서관불안이라 하였다. 도서관불안 현상은 이용자들의 도서관이용을 방해하고 자료의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수반하게 된다. 나아가 도서관 방문 자체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도서관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불안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특히, Bostick<sup>4)</sup>이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LAS(Library Anxiety Scale : 도서관불안척도)를 개발하면서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국내외 관련 연구들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관종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수행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조사연구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정보를 탐색하는 지식도 이용계층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계층과 목적이 다른 관종에 비하여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또한 매우 높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다양한 주민들의 방문과 참여를 바탕으로 교육 문화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1) 남태우·황옥경, “도서관불안 이론의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2005), pp.71-84.

2) Q. C. Jiao, A.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Library Anxiety :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8, no.2(1996), pp.151-163.

3) C. A. Mellon, “Library Anxiety : A Grounded Theory and Its Development,”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vol.47(1986), pp.160-165.

4) S. L. Bostick,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ibrary Anxiety Scale. Doctoral dissertation of Wayne State University, 1992.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공동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본 연구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Bostick<sup>5)</sup>이 개발한 도서관불안 척도인 LAS (Library Anxiety Scale)를 사용하였다. LAS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발한 도서관 불안척도로서 현재의 도서관 환경에는 맞지 않은 문항들이 존재하며, 몇몇의 문항들이 하위영역에 중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척도이다. 특히 컴퓨터 및 네트워크 이용증가와 같은 디지털도서관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서관 불안 척도의 개발하자는 주장도 있다.<sup>6)7)</sup> 그러나 현재 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 측정을 위해 개발된 척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아직도 많은 연구에서 LAS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 도서관 불안 척도이다. LAS는 모두 4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영역은 도서관 직원 장벽(15문항), 정서적 장벽(12문항), 도서관의 안락함(8문항), 도서관지식(5문항), 기계적인 장벽(3문항)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도서관 직원 장벽(barriers with staff)은 사서들과의 의사소통 및 접근, 도움에서의 어려움, 사서들의 시간부족에서는 오는 장애요인 등이 해당하며, 정서적 장벽(affective barriers)는 이용자가 도서관에 대해 느끼는 감정, 즐거움, 도서관의 중요성 등이 해당한다. 도서관의 안락함(comfort with the library)은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쾌적함, 안정성, 편의성을 살펴보는 것이고, 도서관 지식(knowledge of library)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는 지식의 정도와 많은 지식에서 오는 도서관의 익숙함, 편안함 등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기계적인 장벽(mechanical barriers)는 도서관에 설치된 기기의 사용법 숙지, 그리고 기기의 사용에서 나타나는 불안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의 도서관불안 측정 대상인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은 도서관 이용목적과 계층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서관 불안 측정에 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불안의 정도를 관찰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의 남녀 간에 따라서 도서관 불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학력 및 연령대에 따라서 도서관불안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방문목적과 도서관방문횟수에 따라서 도서관불안의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아울러 조사하였다. 이러한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의 특성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는 LAS의 43개 항목에 성별, 연령

5) 상계논문.

6) 남태우, 황옥경, 전계논문, p.81.

7) 권나현, "디지털도서관에서의 도서관불안과 측정도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권, 제2호(2004), pp.29-47.

대, 학력, 도서관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도서관방문횟수, 도서관방문목적 등 6개 항목을 추가하여 모두 4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데이터의 수집을 위한 조사는 진주시립도서관과 전북교육문화회관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2008년 6-7월 중에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참여자는 모두 134명 이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한 답변을 한 28건을 제외하고 106건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5.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성별, 도서관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도서관 불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검증분석을 활용하였고, 연령대별, 학력별, 도서관방문횟수별, 도서관방문목적별 도서관불안 정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검증을 사용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통계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룹집단별 불안감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사후검증은 연령별, 학력별, 방문횟수에 따른 불안감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 II. 선행연구

Mellon의 연구<sup>8)</sup>에서 처음으로 도서관불안 이론을 제시한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의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크게 도서관불안의 영향요인을 밝히는 연구와 도서관불안이 도서관 정보탐색이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불안에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양자의 연구를 함께 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연구들은 Jiao, Onwuegbuzie와 Lichtenstein의 연구,<sup>9)</sup> Jiao와 Onwuegbuzie의 연구,<sup>10)11)12)13)</sup> Onwuegbuzie의 연구,<sup>14)</sup> Anwar 등의 연구<sup>15)</sup>를 들 수 있다.

8) C. A. Mellon, *op. cit.*

9) Q. C. Jiao, A.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Library Anxiety: Characteristics of 'At-Risk' College Student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8, No.2(1996), pp.151-163.

10) Q. C. Jiao, A. J. Onwuegbuzie, "Antecedents of Library Anxiety," *Library Quarterly*, Vol.67(1997), pp.372-389.

11) Q. C. Jiao, A. J. Onwuegbuzie, "Self-perception and Library Anxiety : an Empirical Study," *Library Review* Vol.48, N0.3(1999), pp.140-147.

12) Q. C. Jiao, A. J. Onwuegbuzie, "Library Anxiety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Urban Library Journal*, Vol.11(2001), pp.16-27.

13) A. J. Onwuegbuzie and Q. C. Jiao, "Academic Library Usage: A Comparison of Native and Non-native English Speaking Students,"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46(1999b), pp.258-269.

14) A. J. Onwuegbuzie, "Writing a Research Proposal: The Role of Library Anxiety, Statistics Anxiety, and Composition Anxie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19(1997), pp.5-33.

1996년 Jiao 등<sup>16)</sup>은 LAS를 처음으로 493명의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는데 활용하였다. 그들은 도서관불안은 연령, 모국어, 학년, 도서관교육의 참가수, 고용상태, 도서관방문빈도, 온라인색인의 사용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Jiao와 Onwuegbuzie<sup>17)</sup>는 도서관불안은 미국 대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522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Bostick이 제시한 5개 영역의 도서관불안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들 도서관불안 영역들은 컴퓨터색인이나 온라인 기기의 이용, 성별, 학년, 모국어, 도서관방문빈도, 참여한 도서관 교육 강좌의 수, 도서관방문목적 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Jiao와 Onwuegbuzie<sup>18)</sup>는 1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인식(self-perception)과 도서관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인지된 학술능력, 인지된 지적능력, 인지된 창의력, 인지된 사회적 승인과 관련되는 낮은 수준의 자기인식을 가진 학생들은 정서적 장벽(affective barriers)과 도서관에서의 안락함(comfort with the library)의 영역에서 높은 도서관불안을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Jiao와 Onwuegbuzie<sup>19)</sup>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불안 정도를 LA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국어를 사용하는 학생들보다 국제학생들이 높은 도서관불안감을 보였으며, 국제학생은 5개의 도서관불안영역 가운데 기계적인 장벽이 가장 높은 불안감으로 보였고, 도서관에 대한 지식영역이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Onwuegbuzie<sup>20)</sup>는 81명의 대학원생이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불안을 도서관불안, 통계불안, 구성불안, 연구과정 불안으로 밝히고, 도서관불안에는 직원불안, 인지된 도서관지식, 위치불안, 인지된 도서관의 안락함, 기기적 불안, 자원불안이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Anwar 등은 LAS를 현재 도서관환경에 적절하도록 수정하여 생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Bostick이 제시한 도서관불안척도의 5개 영역 모두에서 도서관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개발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도서관 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국내에서도 남태우와 황옥경,<sup>21)</sup> 권나현,<sup>22)</sup> 박현영과 남태우,<sup>23)24)</sup> 오의경 등<sup>25)</sup>의 연구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남태우 등은 1950년대~60년대에 걸쳐서 심리

15) M. A. Anwar, N. M. Al-Kandari and C. L. Al-Qallaf, "Use of Bostick's Library Anxiety Scale on Undergraduate Biological Sciences Students of Kuwait University,"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Vol.26, No.2(2004), pp.266-283.

16) Q. C. Jiao, A. J. Onwuegbuzie and A. Lichtenstein, *op. cit.*

17) Q. C. Jiao, A. J. Onwuegbuzie, *op. cit.*(1997).

18) Q. C. Jiao, A. J. Onwuegbuzie, *op. cit.*(1999).

19) Q. C. Jiao, A. J. Onwuegbuzie, *op. cit.*(2001b).

20) A. J. Onwuegbuzie, *op. cit.*

21) 남태우, 황옥경, 전계논문.

22) 권나현, 전계논문.

23) 박현영, 남태우,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1호(2006), pp.151-168.

24) 박현영, 남태우, "대학생들의 도서관불안 완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2007), pp.411-430.

학적 개념으로 등장한 일반 불안이론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1986년에 처음으로 제시된 도서관 불안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였다. 그들은 도서관불안의 개념과 증상, 조사연구 불안과의 관계, 정보활용능력 간의 관계, 도서관불안 해소방안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국내 도서관불안연구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였다. 권나현은 도서관불안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LAS를 분석하면서, 디지털 도서관환경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도구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정보이용과 관련된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현영과 남태우<sup>26)</sup>는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 현상을 밝히고 도서관불안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도서관불안척도들을 비교분석하였고, 국내 4개 대학도서관 이용자 36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후기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도서관불안요소로 도서관지식요소, 정보탐색과정과 불안요소, 도서관직원 요소 등 47개 항목을 추출하였다. 또한 그들은 2007년의 후속연구에서 도서관이용교육이 도서관불안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양과목으로 도서관이용교육을 5주간 실시한 후, 대학생의 도서관불안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차이와 도서관이용 빈도에 따른 교육효과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교육이전보다 이후에 도서관불안이 완화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오의경 등은 LAS를 통하여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을 측정하였다. 도서관불안은 성별, 학년별, 전공계열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도서관이용교육은 도서관직원으로 인한 도서관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서적 장벽으로 인한 불안은 학년이 높고, 도서관방문빈도가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도서관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Bostick의 연구,<sup>27)</sup> Van Kampen의 연구,<sup>28)</sup> 그리고 국내에서는 박현영의 연구를 들 수 있다. Bostick은 5개 영역 43개 항목으로 구성된 도서관불안척도(LAS)를 개발하여 도서관불안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LAS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 디지털환경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새로운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은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29)30)</sup>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Kampen은 현대적 도서관환경을 반영하여 LAS의 수정을 제안하고, 다차원도서관불안척도(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MLAS))를 개발하였다. 척도는 '편안함과 친근함', '정보탐색과정에서의 불안',

25) 오의경, 장혜란,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도서관불안 측정과 도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2006), pp.205-221.

26) 박현영, 남태우, 전계논문(2006).

27) S. L. Bostick, *op. cit.*

28) Van Kampen, Library Anxiety, the Information Search Process and Doctoral Use of the Library.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 2002.

29) 남태우, 황옥경, 전계논문, p.81.

30) 권나현, 전계논문, p.31.

‘도서관직원장벽’, ‘도서관이용능력인식 등의 정서적인 장벽’, ‘도서관 관련기술의 적용능력’, ‘도서관에서의 안락함’ 등 모두 6개의 하위영역에 54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LAS보다는 항목에서 세부적이며, 현재의 도서관자료 및 환경을 반영한 척도이다. 국내에서도 박현영<sup>31)</sup>이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Korean Library Anxiety Scale, K-LAS)를 개발하였는데, 한국형 도서관불안척도는 ‘물리적, 환경적요소’, ‘도서관이용 및 지식’, ‘과제 및 연구’, ‘디지털정보’, ‘도서관직원’, ‘심리적, 정서적요소’ 등 6개 영역과 그 하위의 4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 Ⅲ. 연구의 결과 분석

#### 1. 기초통계

LAS에서 제시된 5개 도서관불안의 하위영역을 종속변수로 하여 최소값과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느끼는 각 변수별 불안점수는 도서관지식으로 인한 불안이 2.61점으로 가장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 직원 장벽이 2.60점, 기계적인 장벽이 2.56점, 도서관의 안락함 2.55점, 정서적 장벽 2.54점의 순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영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을 잘 알지 못해서 오는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도서관견학이나 교육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관 직원에 대한 불신과 무능력에 대한 인식이 도서관의 효과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령이 높은 지역주민들의 각종 기기 및 컴퓨터 활용과 관련된 기계적인 장벽도 도서관의 접근과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1> 도서관불안 기초통계

변 수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도서관직원 장벽	1.27	4.13	.54684	.12476	2.60
정서적 장벽	1.00	4.00	.52299	.05080	2.54
도서관의 안락함	1.00	4.13	.54956	.05338	2.55
도서관 지식	1.80	3.80	.44445	.04317	2.61
기계적인 장벽	1.00	4.00	.64879	.06302	2.56

31) 박현영, 도서관불안척도의 개발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 2. 도서관불안 분석

## 가. 성별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에는 어떠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결과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도서관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직원 장벽과 정서적 장벽, 기계적인 장벽에서는 여성의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며, 도서관지식,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남성의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도서관 직원 장벽에서는 남성은 2.54점, 여성은 2.64점, 정서적 장벽에서는 남성 2.53점, 여성 2.56점으로 각각 여성이 더 높은 불안감으로 보였다. 반면에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남성이 2.57점, 여성이 2.54점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높은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도서관 지식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각각 2.64점, 2.60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모든 하위변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p < 0.05$ ). 즉 남녀간의 도서관 불안감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lt;표 2&gt; 성별에 따른 도서관불안 측정

변 수	성별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도서관직원 장벽	남성	43	2.54	.46227	-.673	0.497
	여성	63	2.64	.59899		
정서적 장벽	남성	43	2.53	.52397	-.237	0.813
	여성	63	2.56	.52629		
도서관의 안락함	남성	43	2.57	.54030	-.249	0.804
	여성	63	2.54	.55984		
도서관 지식	남성	43	2.64	.49619	-.458	0.648
	여성	63	2.60	.40876		
기계적인 장벽	남성	43	2.52	.62700	-.445	0.657
	여성	63	2.58	.66722		

$p < 0.05$

## 나. 연령별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아래의 <표 3>은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도서관 불안감에는 어떠한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10대에서 40대 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도서관불안감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도서관 직원장벽에서는 20대가 2.72점으로 불안감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대의 2.69점, 30대의 2.55점, 40대의 2.26점의 순으로 도서관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10대와 20대에서는 도서관불안감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은 30대 40대로 올라갈수록 도서관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또한 이들 집단간의 도서관 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적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정서적인 장벽에서는 20대 집단이 2.65점으로 가장 많은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 집단에서 가장 낮은 2.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p < 0.05$ ).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10대 집단에서 2.75점으로 가장 높은 불안감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0대 집단은 2.26점으로 가장 낮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20대는 2.59점, 30대 2.54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불안감은 높게 나타났고, 반대로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안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도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5$ ). 도서관 지식에서는 20대의 불안이 2.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0대가 2.68점, 30대가 2.59점, 40대가 2.29점의 순으로 나타나 40대가 가장 낮은 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연령에 따른 도서관 불안 측정

변 수	연령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	제곱합	유의확률
도서관직원 장벽	10대	1.80	4.00	2.69	.49541	2.904	2.451	0.038*
	20대	1.33	4.13	2.72	.58723			
	30대	1.53	3.40	2.55	.48425			
	40대	1.27	3.33	2.26	.50695			
정서적 장벽	10대	1.83	3.58	2.54	.46995	1.225	1.328	0.305
	20대	1.50	4.00	2.65	.60023			
	30대	1.00	3.42	2.53	.47215			
	40대	1.33	3.25	2.40	.44719			
도서관의 안락함	10대	2.25	4.13	2.75	.48920	4.189	4.513	0.004*
	20대	2.63	3.63	2.59	.53661			
	30대	1.38	3.38	2.54	.49357			
	40대	1.25	3.25	2.26	.56642			
도서관 지식	10대	2.00	3.40	2.68	.32327	4.012	2.844	0.005*
	20대	1.80	3.80	2.73	.47536			
	30대	1.80	3.20	2.59	.40331			
	40대	1.80	3.20	2.29	.43475			
기계적인 장벽	10대	1.67	4.00	2.77	.58977	2.778	4.380	0.031*
	20대	1.33	4.00	2.63	.67449			
	30대	1.00	3.67	2.47	.59440			
	40대	1.33	3.67	2.23	.61919			

$p < 0.05$

또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도 유의확률이 0.0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p < 0.05$ ). 기계적인 장벽에서는 10대, 20대, 30대, 40대의 순으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05$ ).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도서관직원 장벽, 도서관의 안락함, 도서관 지식, 기계적인 장벽영역에서 일정한 불안 변화의 추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 재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직원 장벽에서 10-20대의 불안감이 30-40대의 불안감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에 높아지는 것과 비례해서 불안감이 감소한다는 경향은 보이지 않지만, 10-20, 30-40대의 두 집단간에는 연령이 많아지면 질수록 불안감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 지식에서도 같은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불안감 감소추이가 연령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서관의 안락함과 기계적인 장벽에서는 연령이 10대에서 40대로 높아가는 것에 비례해 불안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경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4> 연령에 따른 도서관 불안의 Scheffe 사후검정

변수	연령별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도서관직원 장벽	40대	2.2571	-
	30대	2.5494	-
	10대	-	2.6870
	20대	-	2.7197
도서관의 안락함	40대	2.2589	-
	30대	2.5431	2.5431
	20대	2.5865	2.5865
	10대	-	2.7446
도서관지식	40대	2.2857	-
	30대	2.5862	-
	10대	-	2.6783
	20대	-	2.7333
기계적인 장벽	40대	2.2381	-
	30대	2.4713	2.4713
	20대	2.6325	2.6325
	10대	-	2.7681

다. 학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학력에 따라 도서관 불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학력은 고졸, 대학재학이상, 대학원재학이상, 그리고 고졸미만의 네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집단에 대한 불안 측정 결과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직원 장벽에서는 고졸미만의 불안감이 2.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재학이상이 2.60점, 고졸 2.55점, 대학원 재학이상이 2.25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체로 지역주민들의 학력이 높을수록 도서관 불안감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 집단간의 의미 있는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서적 장벽에서는 도서관불안감이 고졸이 2.68점, 대학재학이상이 2.55점, 고졸미만이 2.53점, 대학원재학이상이 2.32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집단간의 차이도 유의확률이 0.617로 나타나 의미 있는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도서관의 안락함에서의 불안감은 고졸미만이 2.81점, 고졸이 2.50점, 대학원재학이상이 2.50점 대학재학이상이 2.49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집단간의 의미 있는 통계적인 차이도 없었다. 도서관지식에서는 고졸미만이 2.74점, 대학재학이상이 2.62점, 고졸이 2.52점, 대학원재학이상이 2.28점의 순으로 도서관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고, 유의수준  $p < 0.05$ 에서 이들 집단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학력에 따른 도서관 불안 측정

변 수	학력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	계급합	유의확률
도서관직원 장벽	고졸	1.87	3.40	2.55	.44982	.940	.845	0.424
	대학재학이상	1.27	4.13	2.60	.57707			
	대학원재학이상	1.93	2.73	2.25	.32455			
	고졸미만	1.80	4.00	2.70	.53023			
정서적 장벽	고졸	2.17	3.33	2.68	.32604	.600	.498	0.617
	대학재학이상	1.00	4.00	2.55	.58008			
	대학원재학이상	1.75	2.83	2.32	.49441			
	고졸미만	2.08	3.58	2.53	.41408			
도서관의 안락함	고졸	1.75	3.00	2.50	.37826	1.744	1.548	0.163
	대학재학이상	1.00	3.63	2.49	.58232			
	대학원재학이상	2.00	3.00	2.50	.36443			
	고졸미만	2.25	4.13	2.81	.51936			
도서관 지식	고졸	2.20	3.00	2.52	.26506	1.640	.995	0.185
	대학재학이상	1.80	3.80	2.62	.48525			
	대학원재학이상	1.80	2.80	2.28	.41473			
	고졸미만	2.00	3.40	2.74	.35310			
기계적인 장벽	고졸	1.67	3.67	2.51	.50213	2.784	3.345	0.045*
	대학재학이상	1.00	4.00	2.51	.67060			
	대학원재학이상	1.67	3.00	2.07	.54772			
	고졸미만	1.67	4.00	2.88	.57960			

$p < 0.05$

기계적인 장벽에서의 불안감은 고졸미만이 2.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졸이 2.51점, 대학재학이상이 2.51점, 대학원재학이상이 2.07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학력이 높을수록 기계적인 장벽의 불안감은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불안감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집단간의 불안감 차이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기계적인 장벽에서 이들 차이를 Scheffe 사후검증을 통해서 재확인하였다. 〈표 6〉에서 보면, 고졸미만집단에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재학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낮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집단사이의 불안감은 학력에 높아지면 질수록 불안감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표 6〉 학력과 기계적인 장벽차원의 도서관 불안 Scheffe 사후검정

변 수	연령별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기계적인 장벽	대학원재학이상	2.0667	-
	대학재학이상	2.5072	2.5072
	고졸	2.5128	2.5128
	기타	-	2.8772

라. 도서관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도서관의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도서관 불안감을 조사하였다.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의 범주는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이용교육, 이용지도, 견학, 기타 교육프로그램이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여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 항목의 분석이 수행되었다. 이들 집단간의 도서관 불안 측정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직원 장벽에서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2.23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2.67점으로 나타나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직원 장벽에서 이들 두 집단간의 통계적인 차이(유의확률 0.002)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장벽에서도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2.11점으로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불안감 2.63점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이들 집단간의 통계적인 차이(유의확률 0.000)도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도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2.20점으로 나타나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집단의 불안감 2.62점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이들 두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도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지식에서는 참여한 집단의 도서관 불안감이 2.40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이 2.65점으로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들 두 집단간의 통계적 차이도 유의수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계적인 장벽에서도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2.14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불안감이 2.64점으로 나타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불안감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집단사이의 차이도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변수에서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서 참여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도서관불안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7〉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도서관 불안 측정

변 수	참여여부	응답자수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도서관직원 장벽	참여	17	2.23	.52918	-3.168	0.002*
	미참여	89	2.67	.52392		
정서적 장벽	참여	17	2.11	.50599	-4.020	0.000*
	미참여	89	2.63	.48570		
도서관의 안락함	참여	17	2.20	.70303	-2.991	0.003*
	미참여	89	2.62	.49189		
도서관 지식	참여	17	2.40	.44159	-2.198	0.030*
	미참여	89	2.65	.43564		
기계적인 장벽	참여	17	2.14	.58995	-2.994	0.003*
	미참여	89	2.64	.63175		

p &lt; 0.05

#### 마.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불안 분석

도서관 방문횟수가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감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도서관 방문횟수와 관련하여 주3회 이상 많이 이용하는 집단, 주1회 정도 이용하는 집단, 월1회 정도 이용하는 집단, 6개월에 1회 정도 이용하는 집단, 그리고 도서관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8〉 도서관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불안 측정

변 수	도서관방문횟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	제곱합	유의확률
도서관직원 장벽	주3회 이상	1.27	4.13	2.57	.65976	2.406	2.732	0.054
	주1회 정도	1.33	3.53	2.49	.51253			
	월1회 정도	1.80	3.20	2.51	.44769			
	6개월에 1회	2.07	4.00	2.99	.54655			
	거의 없음	2.33	3.33	2.80	.35590			
정서적 장벽	주3회 이상	1.33	4.00	2.39	.62625	3.926	3.865	0.005*
	주1회 정도	1.00	3.33	2.50	.46031			
	월1회 정도	1.50	3.42	2.44	.46148			
	6개월에 1회	2.58	3.92	3.02	.42455			
	거의 없음	2.17	3.42	2.79	.38281			
도서관의 안락함	주3회 이상	1.25	4.13	2.50	.61184	3.411	3.774	0.012*
	주1회 정도	1.00	3.63	2.40	.52494			
	월1회 정도	1.63	3.38	2.53	.44371			
	6개월에 1회	1.63	3.50	2.81	.57810			
	거의 없음	1.00	3.38	2.95	.35553			
도서관 지식	주3회 정도	1.80	3.20	2.50	.38053	3.768	2.693	0.007*
	주1회 정도	1.80	3.60	2.54	.43614			
	월1회 정도	1.80	3.80	2.56	.47929			
	6개월에 1회	2.00	3.60	2.94	.51683			
	거의 없음	2.40	3.20	2.90	.29000			

기계적인 장벽	주3회 이상	1.33	4.00	2.51	.71324	1.475	2.439	0.215
	주1회 정도	1.00	3.67	2.47	.62927			
	월1회 정도	1.33	3.67	2.44	.62573			
	6개월에 1회	1.67	3.67	2.93	.76659			
	거의 없음	2.33	3.67	2.74	.41172			

p < 0.05

먼저 도서관직원 장벽에서는 도서관이용이 6개월에 1회 정도 이용하는 집단의 불안감이 2.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거의 이용이 없는 집단이 2.80점, 주3회 이상이 2.57점, 월1회 정도가 2.51점, 주1회 정도가 2.49점의 순으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p < 0.05$ 에서 이들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정서적 장벽에서는 6개월에 1회이용 집단이 3.20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거의 이용이 없는 집단이 2.79점, 주1회 정도가 2.50점, 월1회 정도가 2.44점, 주3회 이상이 2.44점의 순으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이들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도서관 이용이 거의 없는 집단에서 2.9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개월에 1회가 2.81점, 월1회 정도가 2.53점, 주3회 이상이 2.50점, 주1회 정도가 2.40점의 순으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간의 차이도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서관 지식에서는 6개월에 1회이용 집단이 2.94점,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2.90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높은 집단들로 확인되었다.

<표 9> 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른 도서관 불안 사후검정

변수	도서관 방문횟수	유의수준=0.05에 대한 부집단	
		1	2
정서적 장벽	주3회 이상	2.3878	-
	월1회 정도	2.4444	-
	주1회 정도	2.5020	2.5020
	거의 없음	2.7885	2.7885
	6개월에 1회	-	3.0167
도서관의 안락함	주1회 정도	2.4018	-
	주3회 이상	2.5048	-
	월1회 정도	2.5250	-
	6개월에 1회	2.8125	-
	거의 없음	2.9519	-
도서관지식	주3회 이상	2.5000	-
	주1회 정도	2.5381	-
	월1회 정도	2.5600	-
	거의 없음	2.8923	-
	6개월에 1회	2.9400	-

그다음으로 월1회 정도가 2.56점, 주1회 정도가 2.54점, 주3회 이상이 2.50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집단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기계적인 장벽에서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1회 정도의 집단이 2.93점, 거의 이용하지 않는 집단이 2.74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3회 이상이 2.51점, 주1회 이상이 2.47점, 월1회 정도가 2.44점의 순으로 불안감이 높았으나,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 도서관 방문목적에 따른 도서관 불안 분석

지역민들이 주로 공공도서관을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에 따라 도서관불안이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도서관의 방문목적은 연구조사 자료를 탐색하기 위한 집단, 일상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집단, 각종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집단, 일반열람실을 이용하는 집단 등 크게 4가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집단들에 대한 불안의 차이는 <표 10>에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관직원장벽에서 연구조사자료 탐색 집단의 불안감이 2.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 열람실 이용집단이 2.82점, 문화프로그램참여집단이 2.61점, 일상적 독서활동을 위한 집단이 2.43점의 순으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적 장벽에서도 연구자료 조사 탐색을 위한 집단이 2.86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 열람실 이용집단이 2.70점, 문화프로그램참여 집단이 2.53점, 일상적 독서활동을 위한 집단이 2.42점의 순으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도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서관의 인락함에서는 일반열람실을 이용하는 집단이 2.75점, 연구조사자료 탐색을 위한 집단이 2.69점, 문화프로그램 참여집단이 2.53점의 순으로 도서관불안감이 높게 나타났고, 일상적 독서활동을 위한 집단이 2.42점으로 가장 불안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도서관지식에서는 연구조사자료 탐색집단이 2.84점으로 가장 불안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는 집단이 2.72점, 문화프로그램 참여집단이 2.68점, 일상적 독서활동을 위한 집단이 2.5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기계적인 장벽에서는 연구조사자료 탐색집단이 2.81점, 일반 열람실 이용집단이 2.76점, 문화프로그램 참여집단이 2.57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상적 독서활동 집단이 2.39점으로 불안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 집단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도서관 방문목적에 따른 도서관불안 측정

변 수	도서관방문목적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F	제곱합	유의확률
도서관직원 장벽	연구조사자료탐색	2.07	4.00	2.86	.64070	4.602	3.743	0.005*
	일상적 독서활동	1.27	3.40	2.43	.47121			
	문화프로그램참여	1.53	4.13	2.61	.79554			
	일반열람실이용	1.93	4.00	2.82	.46418			
정서적 장벽	연구조사자료탐색	1.67	3.92	2.86	.71200	3.395	2.607	0.021*
	일상적독서활동	1.33	3.33	2.42	.45560			
	문화프로그램참여	1.00	4.00	2.53	.79076			
	일반열람실이용	1.58	3.58	2.70	.40872			
도서관의 안락함	연구조사자료탐색	2.00	3.50	2.69	.54167	2.624	2.272	0.055
	일상적 독서활동	1.00	3.63	2.42	.53283			
	문화프로그램참여	1.38	3.63	2.53	.69921			
	일반열람실이용	1.63	4.13	2.75	.48572			
도서관 지식	연구조사자료탐색	2.40	2.60	2.84	.38442	2.620	1.484	0.055
	일상적 독서활동	1.80	3.60	2.50	.41772			
	문화프로그램참여	1.80	3.20	2.68	.49171			
	일반열람실이용	1.80	3.80	2.72	.45833			
기계적인 장벽	연구조사자료탐색	2.00	3.67	2.81	.50308	2.859	3.428	0.041*
	일상적 독서활동	1.33	4.00	2.39	.67602			
	문화프로그램참여	1.00	3.67	2.57	.75441			
	일반열람실이용	2.00	4.00	2.76	.53190			

p < 0.05

#### IV. 결론 및 제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도서관 지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서관 직원 장벽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도서관이용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도서관 이용에 낯설음, 불편함 등 상당한 도서관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공공도서관 직원들과의 의사소통과 접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항상 사서들은 다른 업무로 인하여 이용자를 도와주는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여성이 남성보다 대체로 더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지식과 도서관의 안락함에서는 남성이 오히려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이는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식과 도서관을 편안하게 인식하는 정도는 공공도서관을 보다 빈번하게 이용하는 여성이 훨씬 많아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령대가 낮은 10대와 20대의 불안감이 30대와 40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서관직원장벽, 정서적 장벽, 도서관의 지식 영역에서는 20대의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서관에서의 안락함, 기계적인 장벽에서는 10대의 불안감이 가장 높았다. 반대로 모든 영역에서 40대의 불안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도서관에 대한 불안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학력에 따른 도서관불안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체로 학력이 낮을수록 도서관불안감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졸미만의 학력을 가진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도서관직원 장벽, 도서관에서의 안락함, 도서관에 대한 지식, 기계적인 장벽에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였으며, 고졸 학력을 가진 이용자는 정서적 장벽에서 가장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반대로 대학원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용자는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낮은 불안감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도서관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른 도서관불안의 차이에서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대체로 높은 불안감을 보인 반면에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자집단에서는 낮은 불안감으로 보였다. 이는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의 활용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을 해소하는데 매우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섯째, 도서관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집단일수록 도서관불안을 덜 느끼며, 도서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도서관불안은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6개월에 1회 정도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거의 방문하지 않는 집단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도서관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고, 도서관을 주1회 이상 이용하는 집단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도서관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방문횟수가 많은 집단이 도서관불안감이 낮은 것으로 보아 그들은 도서관에 대한 지식도 많고, 도서관에 대해 편안하고 안락한 느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방문횟수가 도서관불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도서관을 방문하는 목적이 연구조사 자료를 탐색하거나 일반열람실을 이용한 이용자의 도서관불안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상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불안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지역주민들은 연구조사를 위한 자료탐색에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열람실을 이용하는 집단은 도서관의 지식이나 자료탐색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일상적인 독서활동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집단이나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는 집단은 도서관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으며, 도서관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볼 때 지역주민들의 도서관불안감은 성별, 연령별, 학력별, 도서관방문목적과 방문횟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정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역할 및 기능

을 이해가 요구된다. 다만, 도서관에 대한 불안의 정도차이가 있고, 도서관과 사서의 지식차이가 있는 만큼 계층별 수준별로 도서관의 견학, 이용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의 정기적인 개최가 바람직하다.

둘째, 공공도서관 방문횟수에 따라 불안의 차이가 많음에 따라 주민들의 도서관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즉 도서관의 신간자료와 서비스를 안내하는 마케팅과 홍보프로그램의 도입, 공공도서관의 시설이나 설비의 개선으로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로 도서관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도서관의 홍보와 마케팅을 위하여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연령별로 세분화된 접근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직원에 대한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사무실공간이나 참고데스크의 배치를 이용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직원의 마음가짐이나 자세도 이용자에게 먼저 다가갈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